

敬老及孝子孝婦歌 全



[해제]

이 전적 자료에는경로가 외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원문]

敬老及孝子孝婦歌 全

경로가

세제 경술이요 시유 삼월이라
이해가 도라오니 일희일비 두가지라
일희가 되는것은 공자께서 탄강하사
유도를 선포하야 억조창생 건졌으니
더좋은 해가 다시없고 일비가 되는것은
삼천리 좋은강토 외농손에 빼끼여서
삼십육년 그고생을 몇천년 지나간들
그원수를 잊으리까 잊지못할 원수해라
호풍천지 찬바람에 삼강오륜 끊어지고
의례준칙 박한풍속 길흉유사 모듬에도
밥상을 뺏아가고 노인을 박대하며
인의예지 끊어지니 장유분간 문란했네
로소분간 물란하니 경노심이 삭아졌네
창천이 조림하고 천운이 순환하야
의사열사 애국선생 피를흘린 일편단심
천조에 호소하사 변치못할 순환으로
을유년에 해방하야 대한독립 되었으니
삼강오륜 다시밝고 인의예지 회복되니
천지신명 도움이여 애국열사 덕택이라
의기당당 소년들아 뒷밧힘을 굳게하야
선왕고례 이어보세 호풍에 바람병이
골수에 깊이들어 지금도 의례준칙
여기저기 전염되여 호지풍속 비슷하다
남흔여가 하는데는 부모세업 팔아가며
몇배를 허비하니 준칙이 간곳없고
부모일에 대해서는 준칙을 앞세워서
몇배을 축소하니 통곡이 절로나내
이병에 좋은약은 룡강탕이 제일이오
인의예지 사물탕을 끊지말고 연복하면
백화불침 탈이없고 수명장수 오래사네
이곳은 명승지라 선왕고례 본을받아

신구풍속 지켜보세 어이하야 명승진고
태백산이 주산이니 인심이 청백하고
문수산이 중봉이니 문장명필 부절이요
금봉은봉 줄은양봉 후장에 갈라있어
부호가 연출이요 황해창해 넓은바다
좌우에 옹호하니 산강수악 면하였고
동명이 유곡이니 금계포란 터이좋고
촌명이 수천이니 목숨수자 샘천자라
인간오복 수이선에 부귀장수 터이로다
길성이 조림하고 제위선생 도와주니
어느선생 도움인고 심리안에 제위선생
충제공 권선생과 충효당 이선생과
두곡공 홍선생과 각금당 심선생과
쌍벽당 김선생과 수운당 변선생과
이상에 육선생은 근처에 계시오니
신조가 없을손가 더욱히 공경하고
석천정 맑은물에 안된마음 씻어부고
충효당 높은마루 도덕만 배웠으면
무엇을 한탄하며 무엇이 부족할가
오륜에 으뜸됨은 부모효도 제일이라
부혜생아 모혜국아 애지중지 길렀으니
태산같은 그은공을 무엇으로 갚을손가
부모은혜 갚자하면 부모마음 편케하고
부모친구 대접하야 경로심이 극진하면
다시없는 효성이요 남의어른 공경하면
그집자체 보복으로 우리부모 높아지고
남의어른 박대하면 우리부모 팔세받네
때가마침 삼춘이라 엄동에 모진어름
형의없이 풀어지고 천지만업 많은초목
마디마디 움이돌고 우리맘도 이와같이
화순하고 착한마음 경로심을 잊지말고
부모은혜 갚아보세 청춘남녀 여러손님
경로이치 들어보소 유아늙어 어른되니
어른떨기 어린이요 유아뿌리 어른이라
어른은 유아사랑 유아는 어린공경
한뭉치로 화합하면 모소능장 폐가없어
인도가 바로서네 인도가 바로서면
경로심이 절로나네 여보게 소년들아

출연이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나네
인간백세 잘살아도 못올길로 한번가면
홍안백발 좋은안면 언제나 다시보며
우리들을 볼때마다 지성으로 훈계말씀
언제나 들어볼고 사후에 진수성찬
불여생전 일배주는 자고로 전설이라
우리부모 생각든지 자기행신 생각든지
내먹을술 참아가며 내가쓸돈 아껴가며
경로회를 자주하세 우리도 머잔아서
노인자리 안게되면 보복이 없을손가
소년할일 다시없고 더좋은일 다시없네
수신제가 좋은일도 이가운데 달려있고
보국안민 되는것도 이가운데 생겨나고
충요열 되는것도 경로에 달려있네
육지노름 그만두고 뱃노리를 하여보새
옛날에 명현들도 이와같이 잘놀았네
만고문장 소동파도 적벽강에 뱃놀이오
소년문장 왕발이도 선유덕에 이름났고
우리나라 충무공도 거북선에 성공했네
황제씨 지은배를 공맹안증 중수하니
천만년 무폐하고 치장도 찬란하다
효자충신 도덕군자 적선자를 가득실고
기자순풍 바람얻어 선유차로 나갈적에
앞뒤에 선동선여 풍악소리 낭자하니
길성이 조림하고 선학이 춤을추네
배를못탄 여러손님 선두를 틀어잡고
나도조금 태워주소 애걸복걸 빌것마는
손을떨쳐 하신말씀 여보시요 못됩니다
이배타고 가는길은 선경으로 바로가네
용화세계 좋은곳에 극락으로 놀로가네
이배에 타신손님 자세히 살펴보소
남자손임 말하자면 천지신명 공경하고
나라에 애국자요 부모앞에 효도하고
친척간에 화목하고 친구간에 신의있고
급한사람 건져주고 없는사람 구제하고
길을몰나 헤맨사람 지성으로 지도하고
칭가유무 있는대로 봉제사에 지성하고
인정을 깊이써서 오신손님 반겨하고

적음덕을 많이하여 활인지심 손임이요
부인손님 살피보니 삼종지도 극진하야
시부모를 효도하고 가장을 공경하야
내외화순 극진하야 부모가 안락하고
일가정이 화합하니 전국이 화합이요
일인지어 만인이요 일가지어 전국이라
자고로 이른말이 치마세체 자랑이라
시모치마 자기치마 자부치마 좋고보면
더좋을게 다시없네 가정흥페 치마자랑
문호흥쇄 치마자랑 국지흥망 치마자랑
이현부모 치마자랑 혼인가별 치마자랑
남녀간 착한손님 이해에 실었으니
당신네는 못합니다 박절이 말하자면
등하불명 어두어서 자기그름 모르고서
날을원망 할터이나 자세히 드러보소
이새상에 탄생할때 누덕인줄 모르고서
며칠만 가물어도 하느님을 욱을하고
교훈이 엄중하면 부모를 반역하고
치산에 흑독하면 가장앞에 불순하고
가새가 군속하면 봉제사에 부정하고
사리사욕 과히채워 오신손님 괘새하고
안된마음 참지못해 이간부처 인정띠고
모여앉아 할일없이 남의흥만 일을삼아
여러가지 중한죄가 태산같이 높았으니
이른배를 못탈이다 후토에 도라가서
지옥생활 어이하며 자손양화 어이할고
배를못탄 저손님네 돌리어 생각하니
남모르게 내가한일 저다지 용케알고
원통하고 후회로다 잘못된일 후회로다
새상에 낮을들고 부끄러워 누를볼고
배가가네 배가가네 꽃덩어리 배가가네
청청한 목소리로 뱃노레를 하여가며
범범중유 떠나간다 노래곡조 들어보니
도연명의 귀거래사 왕발의 등왕각서
천하문장 시조단가 마음이 감동되네
여보게 소년들아 이해타기 힘을쓰새
왕후장상 씨가없고 소인대인 씨기없네
마음만 널리쓰면 소인도 대인되고

행신만 점잔으면 상한도 양반되네
흥미로 놀다보니 시간이 다되었네
파연주 한잔술로 파연곡을 불러보새
백두산석 마도진이요 두만강수 음마무라
남아이십 미평국이면 후새수칭 대장부오
총의당당 이문구는 남장군의 열서로다
안불장식 병사회는 구래공의 명작이라
노새노새 절머노새 병이들면 못노리라
인생한번 주어지면 만수장림 운무로다
효도하새 효도하세 계실적에 효도하새
경로하새 경로하새 계실적에 경로하새
부모불효 사후회는 주부자의 명작이라
천하영웅 진시황도 한번아차 죽어지니
여산황도 흠뻑이요 만고충신 굴삼여도
도해후애 못오시고 천하명의 편작이도
자기병은 못곤쳤고 만승새력 한무제도
구선하기 힘쓰다가 장생불사 못하였네
한명에 가신손님 다시온일 없었으니
경로하세 경로하세 진심으로 경로하세
이마을 경로회는 년년이 하여보세
태백산하 천한농부 두서없이 지은글을
널리널리 용서하고 경사로 생각하소
상좌에 여러손님 편안히 가겠다가
대접이 초박하나 명춘에 다시오소
만수무강 하옵기를 두손모아 비나이다

효자효부가

여보게 학생들아 나의말을 들어보게
만물중에 귀한몸이 어이하여 생겼으며
누구덕에 살아가며 어이하여 귀타할꼬
천지신명 덕택이요 군사부에 덕택이요
일월성신 덕택이요 사시오행 덕택이요
삼강오륜 덕택이요 심주군은 덕택이라
하느님은 높이있어 양으로 정해있고
땅님은 낮게있어 음으로 정하여서
부부가 되었으니 인간사도 그줄이라
집을짓고 살림하며 생산하여 길러낼때
우주에 둥근집을 수화금목 기동하고

오십토로 온돌하고 일월로 등을달아
 사해를 밝힌후에 그집에서 생산하니
 우리인생 생겨나고 비금주수 초목이며
 곤충어벌 많은생물 고이고이 길러낼때
 밤으로는 이실주고 낮으로는 태양조서
 그간운데 우리인생 만물의 영장이라
 영장값을 할나하면 복중에 집을짓고
 삼강오륜 거동하고 도덕으로 들보하고
 인의예지 문을달고 사룡공상 업을하며
 만새유광 전하자면 마음심자 복판기동
 이기동을 보호하새 주약자는 옥괴하고
 보약자는 국경이라 중한기동 보호하세
 이집이 어퍼지면 천지은혜 배은이요
 부모은혜 배은이요 백자천손 소용없고
 기개세도 소용없고 좋은조상 소용없고
 십년인심 일조사요 익재삼우 간곳없네
 천지부모 배은하면 금수만 못하리라
 금수가 말못하나 장한일이 하도많다
 한산사의 종소리는 굉이짜서 보복하니
 사람만 못할손가 봉비천인 배골아도
 서속은 안먹으니 사람만 못할손가
 옷이검은 까마귀도 부모은혜 갇아주니
 사람만 못하리까 포악한 호랑이도
 도효자를 등에업고 오월홍시 구해주니
 사람만 못하리까 하대받는 개마음도
 주인앞에 의를지켜 개무덤에 표석있고
 순흥땅에 연열부는 가장위해 입절하고
 장능에 장한노루 대왕터를 잡았으니
 비금주수 짐승들도 윤강이 있건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은혜 못갠우면
 금수보기 부끄럽고 사람도리 못하면은
 누를대해 낮을들고 지금은 잘사라도
 장래행복 장구할까 자기행신 잘못하면
 돌려놓고 욕을하네 천은지택 생각하고
 부은사택 생각하면 지금은 못살아도
 잘될날이 머잖으네 천리인사 생각하면
 호리도 틀림없네 부친은 하늘이요
 모친은 땅이로다 부혜생아 낳으시고

모혜국아 길을적에 이슬대신 젖을주고
 태양대신 덩게입혀 고이고이 길러내여
 부자유친 좋은자미 사람마다 바랬더니
 음양으로 태인몸이 반복의 탓일는가
 어떤사람 효자되고 어떤사람 불효되니
 이것은 어인일고 마음밭을 묵힘이라
 양전미답 좋은중에 심전이 제일이라
 심전개발 좋은밭에 온갖곡식 파종하고
 농사잘할 그욕심은 사람마다 있건마는
 불같은 여름날에 게으름이 앞을서서
 농사를 못한사람 추운겨울 닥쳐오면
 부모처자 어이하며 자기몸은 어이할고
 더움을 무릅쓰고 온갖고생 하여가며
 온갖흙을 받아가며 구사십생 하드라도
 마음농사 잘한사람 풍진세계 겁이없고
 오롱조롱 달린열매 날날이 결실이요
 양명후세 빛난뒤에 이현부모 되게되면
 조상이 높은뒤에 자기몸도 높아지고
 자손만대 영광이라 터줄은게 다시없네
 틀림없이 정말이니 만리장래 생각그던
 부디부디 기심매새 괴로워도 기심매고
 자미로도 기심매세 안된기심 뽑아내고
 좋은줄기 세워두면 그줄기에 가지벌어
 온갖열매 다녀나니 출천대효 여기열고
 충신열사 거기열고 단심열녀 거기열고
 부귀공명 거기열고 도덕군자 거기열고
 부부화합 거기열고 형우제공 거기열고
 장유유서 거기열고 봉우유신 거기열고
 훈인가별 거기열고 수신제가 거기열고
 평천하도 거기여니 심전농사 제일이라
 우리마을 유곡리는 자고로 농촌이라
 심전농사 착실하야 계계승승 현인나서
 전장법되 찬란하야 만세유광 빛이나니
 총제선생 높은도덕 명명덕을 알수있네
 슬프다 이새상은 흥진비래 때가있어
 세강속말 반복으로 북서풍 독한바람
 해동천치 불어와서 풍제를 만났구나
 농사를 패놓하니 추운겨울 어이살며

부모처자 어이하며 자기몸은 어이할고
운기에 탓이로다 천발살기 할라하면
이성역수 바꾸이고 지발살기 할라하면
용사등육 변이나고 인발살기 할라하면
멸윤패상 가련하고 천인합발 할라하면
만변정기 흠틀려서 인심이 따라가니
삼강오륜 간곳없고 인의예지 끊어지니
충효열이 간곳없고 유아독존 뿐이로다
좋은길은 잃어두고 까시발에 달려들어
아는것은 금전이요 보는것은 주색이요
언행은 욕설이요 배운것은 주먹행세
악한사람 살수없고 빈한자도 살수없고
도학자도 살수없고 고독자도 살수없고
약육강식 주장하니 어이하야 살아날고
누구를 원망할고 세운의 탓이로다
여보게 학생들아 좋은길과 까시길을
자세히 살펴보게 임임총총 많은인생
남녀를 구별하여 남자가 하는일은
조출경 농사지어 부모봉양 해야되고
야귀독 고인서를 성심껏 잘배워서
사람할일 해야되고 그중에 좋은것은
부모효도 첫째되고 오신손님 반겨하면
부모가 높아지고 부모친구 대하그던
부모갓이 반기하고 봉제사에 지성하야
선왕고례 변치말고 허욕을 내지말고
분복대로 살아가면 평천하도 여기있고
국태민안 여기있어 이것은 본길이요
부인내 하는일은 삼종지도 좋은길을
한자육도 틀림없이 그길을 밟아가며
출가종부 되그덜랑 가장말을 거역말고
하늘갓이 공경하고 사랑에 손님올때
누구보로 왔을는가 사랑주인 친구로다
손의귀가 기다하니 아무썽록 화순하야
언어를 순케하소 아이를 울이든지
말소리를 높이든지 여러가지 조심하야
손님마음 편케하고 시부모나 가군이나
출입웃이 정결하고 만사에 출등하면
자기칭찬 높아지고 크는아이 본을보네

이것이 큰길이요 까시길을 피함이라
까시길로 잘못가면 지금은 좋다해도
뒷날이 무서워라 오신손님 팔대하면
그끝으로 흥이나서 시부모와 가군님은
여러손님 모인중에 낯을들고 갈수없고
남훈여가 혼설에도 큰방해가 생겨나고
대별문호 친정흥도 여기서 생겨나니
친정부모 배은이요 자기망신 어이할고
지금은 좋아해도 장래행복 못바래네
겁이나고 무서워라 여보게 남녀학생
추로인풍 착한말씀 틀림없는 정말이라
백옥은투 어이도라도 불능오예 기색하고
군자는 행어탁지라도 불능염난 기심이라
아무리 반복시나 조상음덕 태산같고
심전기심 잘맨자가 까시길로 거늘손가
터이좋고 조상좋아 효자효부 나섰구나
문수산 일지맥에 삼봉이 생겼으니
중유일봉 주산이요 좌우양봉 옹호되어
궁자산이 안산이라 천지무궁 명기로다
길성이 조림하야 오막살이 초옥속에
효자효부 나섰으니 놀납다 누집인고
총제선생 십사새손이요 권상표씨 자제로다
명함은 영섭씨요 부인은 의성김씨
학봉선생 후예로다 조상좋은 값일는가
유풍선속 끼침인가 상하화목 부창부수
한태합해 효성하니 이른복가 드무도다
석천정 맑은물에 차새티끌 씻어부고
총효당에 도덕배워 내백외백 백백이요
도를지켜 명명이라 명명백백 합을하여
부모앞에 효도하니 백행에 으뜸이라
뉘아니 부러하며 뉘아니 앙시할가
도덕총효 네가지는 분용즉 빗길이요
합용즉 한길이라 도생어 인덕하고
덕생어 지효하고 효생어 총이되나
병이들면 허사되니 약안먹고 어이할고
서북풍에 바람병은 무엇이 명약인고
인의예지 사물탕과 삼강오륜 팔미탕을
끓지말고 연복하면 다시없는 명약이라

이양반은 미리알고 이약을 연복하네
조흔소식 높이듣고 원근손님 찾아오네
통개중문 여러놓고 오신손님 후대하니
어떤손님 찾아올까 착한마음 품에품고
인사하로 찾아오고 불효하고 불신자들
개과천선 찾아오고 관객에 높은손님
표창하로 찾아와서 방치장을 살펴보니
겉은비록 초옥이나 방치장은 찬란하다
맹종씨의 아롱수건 노래자의 채의화복
뵈을떠서 곱게지어 벽상에 걸러있고
값이많은 효경책은 서상우에 얹혔으니
사랑치장 차란하고 진씨부인 열절치마
사임당의 문교치마 유풂으로 받아다가
의상에 걸러있고 태임태교 교양책은
안상우에 얹혔으니 서기가 영롱이라
안방치장 더욱좋고 보는손님 감동이라
치마자랑 더욱좋다 두루마기 좋다해도
치마가 부족하면 만사가 불성이라
구경이 흡족이라 동성상을 언파되고
동도상성 번성하니 더좋은게 다시없고
만대여경 싹이로다 무엇으로 효성이며
무엇으로 효부든고 철이들고 성년후에
부모가 명영하면 수집업즉 투지하고
식제구즉 토지하야 타기사지 한일없어
양측치기 낙을하고 부모가 병이들면
주야로 근심하야 내외분의 정성으로
병새가 낫기전은 눈물을 흘려가며
자존병을 곤처내야 병측치기 우를하고
제사가 드실때는 희로를 불발하고
정성이 지극하니 제측치기 음을하고
문하식음 자주물어 식성맞게 대접하고
문의육한 자주물어 동온하정 되게하고
훈정신성 지성하야 부자유친 감동되고
출필고 반필면을 한번도 꺾이없고
근검절약 지켜가며 빈한가정 요족하고
사십객이 책을끼고 방방곡곡 선생찾아
수신제가 효경서를 진심으로 공부하야
인자은척 좋은마음 조차불이 잊지않고

임심이박 조심으로 효당갈력 실행하고
 망담피단 흥을얹고 미시기장 자랑없어
 크는아이 선생이요 이세상에 드무도다
 더구나 착한일은 백씨가 불구자라
 성훈을 어이하며 누구가 취랑할고
 면도령도 막연하나 형우제공 착한마음
 엄연이 형을두고 내가먼저 취처하면
 역천이 적실하고 멸윤을 혐의하야
 신들매고 맹서하야 방방곡곡 구흔하여
 성훈이 되었으니 큰집이 두렸하다
 남이보고 감동하고 부모가 기뻐하네
 옛날호성 말하자면 젓나라 혜숙겸은
 모친병이 지중하야 지성으로 구약하니
 하느님이 감동하야 정공등을 구하여서
 대병을 완치하고 글로서 상을탄네
 母疾求醫 日夜憂 仰天稽顙 苦祈求
 수나라 서호숙은 강보에 부친잃고
 모친전에 들어가며 사진을 부쳐놓고
 훈정신성 진심하니 사진이 생시같다
 早孤不識 父儀容 圓像依依 問母慈
 오나라 맹종씨는 모친병이 엄중하야
 모친이 하신말씀 겨울죽순 원을하니
 대를안고 통곡하니 두날죽순 올라와서
 모친병을 곤쳤으니 효행이 제일이라
 行孝當年 說孟宗 慈親思笋 逼寒冬
 한나라 정난씨는 십새전에 양친잃고
 성년후에 한이되어 남걸각아 대신하야
 생시같이 효도하니 희로애락 생시같다
 刻木爲親 出至情 晨昏定省 似平日
 효자충신 나는법이 고금이 다르리까
 경주에 손순선생 내외분의 효성으로
 천우신조 도와조서 천지만엽 가지벌어
 만대유전 시조되고 여강이씨 잠계선생
 천리원정 먼먼길에 부친시체 등에업고
 고향으로 반구할때 피눈물을 뿌려가며
 지성효도 하신음덕 백자천손 명문이요
 영천이씨 농암선생 습득공과 형제분이
 부모산소 시묘하고 생전사후 효도하야

효절공 시호받아 손지자엽 많은가지
 창대무궁 잘됐으니 부모앞에 효도하면
 효자효손 부절이라 종과득과 증두득두
 틀임없는 철인이라 자기가 불효하면
 뒷일이 겁이나네 천리가 소소하니
 이집은 잘되리라 곽자의 좋은바람
 이집으로 불터이요 장공예 좋은바람
 이집으로 불터이니 출중효성 귀한몸이
 만수무강 하옵소서 돌에새겨 표기해도
 오래되면 매태피고 물질로 표기해도
 오래되면 없어지니 지식없는 글이라도
 이책을 전해조서 문장숨씨 교정하야
 대대로 전해가면 남의조상 좋을시고
 여보게 남여학생 이른뵈을 깊이보게
 夫婦相和 親志樂 父母深慈 子誠極
 人生雖貴나 不孝則反獸
 富貴無雙 不孝則不久
 勢力振世 不孝則隨讐
 文學過人 不孝則反愚
 家雖甲族 不孝則反憂
 美哉此人兮 孝行優優

당일권학창가

깨어라 깨어라 어서 깨어라
 곤한잠을 놀래가며 어서 깨어라
 값어라 값어라 어서 값어라
 우리부모 깊은은혜 어서 값어라
 달여라 달여라 어서 달여라
 만리같은 우리장래 어서 달여라
 걸어라 걸어라 어서 걸어라
 삼강오륜 좋은길을 어서 걸어라
 밝혀라 밝혀라 어서 밝혀라
 화순하고 참는길을 어서 밝혀라
 이어라 이어라 어서 이어라
 인의예지 좋은줄을 어서 이어라
 막아라 막아라 어서 막아라
 주색잡기 험한길을 어서 막아라
 입어라 입어라 어서 입어라

정신무장 좋은옷을 어서 입어라
몽쳐라 몽쳐라 어서 몽쳐라
우리학도 굳센힘을 어서 몽쳐라
◆◆◆◆ 어서 받아라
◆◆◆◆ 좋은도덕 어서 받아라
◆◆◆◆ 들어라 어서 들어라
◆이날린 태극기를 어서 들어라
신해 삼월 초육일
東隱 李羲仁 著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